

■ 지평지성 소식 ■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개최



지평지성은 6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업계 기업, 협회 등 관계자 130여명을 모시고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로펌이 기업규제와 헌법소송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로스쿨과 로펌이 실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2부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헌법연구관을 지낸 서울대 전종익 교수가, 2부에서는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윤상 부장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황인학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종보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복우 입법조사관(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평지성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평지성은 경제법제의 위헌적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 조선일보(2012. 6. 12.)
- 지평지성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 헤럴드경제(2012. 6. 12.)
- 지평지성, 서울대 로스쿨과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 아시아투데이(2012. 6. 12.)
- 지평지성 18일 대한상공회의소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개최 - 법률신문(2012. 6. 13.)
- 부동산 관련 법률 곳곳에 '위헌 요소'...손질 필요 - 한국경제(2012. 6. 19.)
- 지평지성 세미나 "건설부동산 법제 위헌성 극복해야" - 국토일보(2012. 6. 19.)

[행사 사진]



개회사를 하고 있는 서울대 성낙인 교수(좌)와 사회를 맡은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우)



1부 발표를 하고 있는 전종익 교수(좌)와 2부 발표를 하고 있는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우)